

유입부터 재방문까지...광양, 통합 관광전략 가동

광양시는 급변하는 관광 소비 트렌드에 대응해 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대, 참여형 인센티브 정책 고도화, 디지털 기반 관광마케팅 강화,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결합한 종합 관광마케팅 전략을 본격화한다.

관광객의 유입부터 체류·경험·소비·재방문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해, 머무는 시간이 기억으로 남고 다시 찾게 되는 관광도시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시는 광양 시티투어 운영, 코리아둘레길 남파랑길 광양구간 활성화, 배알도·망덕포구·섬진강 관광 동선 구축을 통해 체

류형 관광 콘텐츠를 강화한다.

야경·에코아트·산업관광 등 테마형으로 운영되는 시티투어로 주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남파랑길 광양 구간에는 섬터와 체험프로그램을 결합해 '견고, 체험하고, 머무는' 관광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배알도 별빛야영장·망덕포구 석양·섬진강을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해 자연·야경·축제·캠핑이 어우러진 1박 2일 체류 코스로 설계하고, 숙박과 체류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관광 구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읍동주 테마 관광상품 인센티브

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대...참여형 인센티브 고도화도 배알도 야영장·망덕포구·섬진강 잇는 관광벨트 구축

지원사업,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함께 신규사업 광양관광미션투어를 운영해 참여형 관광정책을 강화한다.

운동주 유교 보존 정병옥 가옥과 국내·외 관련 유적지를 연계한 테마 관광상품 이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 역사·문화 관광객 유치에 나시고, 단체관광·수학여행·MICE 관광객 대상 인센티브 지

원으로 관광 수요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대한다.

여행 전문 유튜브, SNS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신규 관광자원과 권역별 핵심 관광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브랜딩하며, 스포츠 콘텐츠부터 대표 영상 제작, 팸투어, TV 방송 연계까지 이어지는 입체적 디지털 홍보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백운산권(자연·힐링), 구봉산권

(전망·야경·랜드마크), 섬진강권(축제·캠핑·갯기여행) 등 권역별 특성을 살린 콘텐츠를 집중 노출해 온라인 관심이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을 통해 섬진강을 공유하는 광양·구례·곡성·하동 4개 시·군이 함께 '섬진강 스테이' 브랜드를 구축하고, 캠핑·웰니스·축제형 체류 관광 콘텐츠를 공동 육성한다.

또 전남도와 함께 '행복여행 지원사업'을 추진해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

갈 계획이다.

관광시설 환경 정비와 안전 관리도 함께 병행해 관광객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떠나는 시간까지 도시의 세심함과 신뢰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시는 관광의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는 통합 관광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광의 질을 높여 관광객이 머물고 다시 찾는, 시민과 지역 상권이 함께 체험하는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광양시 야경 모습

장성, 벼 농자재 공급 업체 12곳 선정

심의회 개최...영농비 20% 절감 기대

장성군이 올해 '벼 농자재 지원사업' 공급 업체 12곳을 최종 확정했다.

4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농자재 선정 심의회'를 열고 농가 수요와 가격 적정성, 품질, 사업 추진 공정성 등을 종합 검토했다.

심의 결과 상토 업체 4곳, 일반 육묘상 자처리제 업체 3곳, 친환경 육묘상자 처리제 업체 2곳, 액상규산 제조 업체 3곳 총 12개 업체가 선정돼 농자재를 공급하

게 됐다.

군은 이번달 중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 기간과 대상, 지원 기준 등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로 안내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사업 시행을 통해 지원되는 농자재 가격이 저렴한 만큼, 농가의 영농비가 20% 가량 절감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



장성군은 최근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농자재 선정 심의회'를 열고 농가 수요와 가격 적정성, 품질, 사업 추진 공정성 등을 종합 검토했다.

곡성, 출생기본소득 지원사업 기준 확대

최대 4320만원 지원

곡성군이 저출산 대응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출생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을 확대 운영한다.

출생기본소득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2024년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만 1세부터 만 18세까지 매월 2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아이 1인당 최대 43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거주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출생아와 부모 모두가 출생신고일 이후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출생아 및 보호자 중 1명만

전남 내 주민등록을 유지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에 반영해 실제 수혜 대상을 넓혀겠다는 취지다. 단, 신청 시점에는 출생아 및 보호자 2인 모두가 전남 또는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출생기본소득은 출생아 생후 11개월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 지급은 적용되지 않는다.

곡성군 관계자는 "출생기본소득은 출산 이후에도 아이의 성장을 지역이 함께 책임지겠다는 의미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곡성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

나주, 반려견 놀이터 시범 운영...반려동물 공존 환경 조성

중소형견·대형견 구분...동물 등록 시 누구나 무료 이용

나주시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반려견 전용 놀이 공간을 조성하고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정착과 반려동물 친화 인프라를 확충한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반려견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나주시 반려견 놀이터 (NAJU PET PLAYGROUND)'를 시범 운영한다.

나주시 반려견 놀이터는 금천면 원곡리 947번지 일원에 조성된 반려견 전용 놀이 공간으로 반려견과 반려인의 여가와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설은 중소형견 전용 놀이터 약

3636.3㎡(1100평), 대형견 전용 놀이터 약 1454.5㎡(440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반려견 체형에 따라 공간을 구분에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이용 대상은 동물 등록이 완료된 반려견으로, 맹견은 출입이 제한되고 QR 코드를 통해 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입장하는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아간 이용은 제한되며 장마와 폭우, 폭설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이용자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휴장할 수 있다.

이용자는 반려견과 동반 입장해야 하며, 입퇴장 시 목줄 착용, 배변 봉투 지참



금천면 원곡리 947번지 일원에 조성된 반려견 놀이터 전경.

및 배변 즉시 수거 등 기본적인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시설 운영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운영 방식을 보완한 뒤, 3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반려견 놀이터는 나주시가 추진

중인 '영산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1단계 인프라 사업으로 앞서 개최된 '2025 나주 영산강 명명파크 페스티벌'과 연계해 반려동물 친화 공간 조성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동반 관광 코스 홍보, 시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도입 등 연계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나해 명명파크 페스티벌을 통해 성숙한 반려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이번 반려견 놀이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영산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연계해 나주가 대표적인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보성, 12개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

5일 이상 숙식 단체·팀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보성군은 2026년 동계 전지훈련 기간 동안 역도·축구·야구 등 12팀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보성군 홍보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번 동계 전지훈련에는 역도 6팀, 축구 5팀, 야구 1팀이 1~2월 약 두 달간 보성군 일원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1월 훈련 기간에는 국군체육부대, 포천시청, 광주시청 역도단이 합동훈련을 실시했으며, 2월부터는 광주체육중·고등학교, 부산항공고등학교, 부산동의중학교 선수단이 합류해 전지훈련을 이어갈 예정이다.

군은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보성다목적트레이닝장, 별교생태공원축구장, 회천생태공원야구장 등 체육 시설을 보강하고, 전지훈련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5일 이상 숙식하는 단체와 전국·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을 위한 대표선수 선발·훈련팀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사용

료를 전액 감면해 비용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또 보성농차음료, BS삼총사 캐릭터 상품, 농차식용유, 별교짜파 등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물품 지원과 홍보 마케팅을 병행해 선수단과 지도자, 가족 방문객을 대상으로 보성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군은 체계적인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시설 점검, 의료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전지훈련팀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25년 26팀, 6000여명의 선수단이 보성군을 찾아 전지훈련을 진행했으며, 숙박·외식·유통 등 지역 상권 전반에 실질적인 소비 효과를 창출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보성군 관계자는 "올해도 선수단과 가족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에 나선 '다섬이 트럭'

달리는 섬박람회 홍보관

'다섬이 트럭' 전국 축제 행사 누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달리는 섬박람회 홍보관 '다섬이 트럭'을 운영한다.

'다섬이 트럭'은 전국 각지의 대규모 축제 등 행사에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홍보 플랫폼으로, 전국민에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의미와 비전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했다. 트럭 외부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마스코트와 로고로 꾸몄으며, 내부

는 섬박람회 홍보영상 송출이 가능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리플릿 배포, 이벤트 운영 등 다양한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조직위는 섬박람회 D-200일을 기념해 여수 주요 거점을 시작으로 3월 부산국제보트쇼, 4월 고양국제꽃박람회, 10월 순천만갈대축제 등 전국 주요 행사에 운영할 계획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